

SK, 화학산업 대표주로 “우뚛”

증권선물거래소, SK 주가 35.12% 급등 … S-Oil 제치고 자리매김

2006년 유가증권시장의 산업 대표주들이 업종지수보다 6%p 가량 초과 수익을 내는 등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, 유가증권시장 각 산업에서 시가총액 1위인 산업 대표주들은 2006년 평균 14.89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산업 지수 상승률 대비 5.93%p 높은 것이다.

반면 업종 2위주는 평균 6.19% 상승해 산업 지수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.

대표주들 가운데서는 의료정밀산업의 대표주인 삼성테크윈이 2006년 78.67% 급등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철강금속산업의 POSCO가 36.14%, 화학산업의 SK가 35.12%로 뒤를 이었다.

그러나 운수장비산업의 현대자동차가 13.26%, 의약품 대표주 유한양행이 12.64%, 종이목재 대표주 한솔제지가 12.54%, 기계 대표주 두산중공업이 1.84% 감소하며 업종지수 등락률에 미치지 못했다.

2006년 들어 의료정밀산업이 54.19%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철강금속이 36.59%, 건설업이 22.21%, 통신업이 17.17% 등으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.

반면, 종이목재가 10.35%, 운수장비가 3.67%, 운수창고가 3.37% 감소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.

한편, 2006년 들어 CJ와 SK가 각각 27.27%, 35.12% 급등하며 하이트맥주와 S-Oil을 따돌리고 음식료업종과 화학산업의 대표주로 새로 자리매김했다. (서울=연합뉴스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5/02>